연중 제2주일 강론(2019년 1월 20일)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사람들은 흔히 무슨 좋은 일이나 재미있는 일이 있어야 웃는 줄 알지만, 먼저 웃다 보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복이 와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복이 옵니다.

한국에서 한때 ‘웃음치료’라고 하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죠? 요즘도 고민이 많거나 본인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이 ‘웃음치료센터’를 찾아가서 웃는 연습도 하고 상담도 받는다고 합니다.

웃음치료과정은 그냥 무조건 웃는 연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웃는 겁니다. 큰 소리를 내서 일부러 웃기도 하고, 깔깔깔 하면서 일단 웃어보는 겁니다. 아무 생각없이 무조건 웃는 거죠. 그런데, 웃다보면 웃고 있는 그 순간에는 안 좋은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웃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렇게 계속 웃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늘 웃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그렇게 많이 웃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맘 먹고 한번 웃으면서 신바람 나게 기쁘고 재밌게 살아보도록 하십시다. 이 신바람나게 해주는 힘이 바로 성령입니다. 웃으면서 신바람나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말입니다. 틀림없이 웃으면 복이 옵니다.

어느 날 서울에 있는 한 웃음치료센터에 어떤 자매님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빚보증을 서서 집과 집에 있는 모든 가구들에 차압딱지가 붙고 월급도 몽땅 다 차압당하여 우울증에 걸린 자매였습니다. 친구가 저러다 무슨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웃음치료를 소개해 준 것입니다. 며칠 동안 웃음센터에서 웃는 훈련을 하고 그 자매는 가정부 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한 집이 아니라 두 집을 하는데 항상 시작과 끝을 웃음으로 기쁘게 시작하고 기쁘게 마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우울하고 힘들기만 했던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루는 그 자매가 가정부 일을 마치고, 억지로 웃는 시늉을 하면서 집에 돌아오다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집안 사정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무능한 남편에 대한 원망이 컸지만 그래도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후 몇년 동안, 이런 저런 고생을 다 하다가 다행히 경제사정이 좋아져서 조금 큰 집으로 이사를 하는데, 이삿짐을 정리하다 남편의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몇년 전 일마치고 오는 아내가 베란다에 서 있는 남편과 서로 손을 흔들었던 바로 그 직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담배 한 대를 마지막으로 피우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져 죽을 생각이었는데, 아내가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 주던 그 모습이 남편의 생명을 구했던 것입니다. 힘들지만 아내가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주는 그 모습에 그래도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다짐을 했던 것이지요. 웃음과 미소가 인생을 바꾸었던 겁니다.

웬수 같은 남편, 여우같은 아내, 말도 안듣는 지긋지긋한 자식들, 특히 웬지 정이 안가고, 꼴보기 싫은 사람들 주변에 꼭 하나씩 있죠? 그런 사람일 수록 애써 따뜻하고 친절한 미소와 웃음을 보내 보세요. “저사람이 미쳤나? 왜 저렇게 웃고 다니지?”하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다 보면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웃고 사세요. 인상 잔뜩 쓰면서 억지로 웃지 마시고... 우리의 이야기는 언제나 해피 엔딩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첫번째 기적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첫번째 기적은 당시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큰 도시에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마을, 카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볼 만한 놀라운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물위를 걷는다거나, 아니면 오천명을 먹인다거나, 병든 사람들을 막 고쳐 준다거나 하는 놀랄만한 큰 기적이 아니었죠. 그저 작은 도시에서 젊은 혼인 부부가 당황하지 않게 도와주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이었습니다.

이 첫번째 기적이 전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느님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 작은 일상 생활안에서 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여기서 마리아의 역할입니다. 처음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거절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간청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다시말해서, 마리아의 충실한 믿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정에도 없었던 하느님의 계획을 바꾸게 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적인 이유입니다. 마리아의 충실한 믿음으로 일상의 작은 일이 하느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변화시키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놀라운 능력으로 아픈 사람들이 낫습니다. 죄인들이 용서를 받습니다. 마귀들린 사람들이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이 세상과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미사를 통해서 빵과 포도주를 당신의 몸과 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제 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소박맞고 버림받은 처지’에서 ‘선택되고 축복받은 백성’으로 변화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 2 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우리가 받은 작은 탈렌트가 모여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공동선을 이룰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의 작은 도시, 카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기적이야기는, 우리 일상 생활의 작은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카나는 나자렛에서 몇마일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나자렛도 카나도 아주 작은 시골 동네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하느님의 은총이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들 곁에서, 우리 일상의 평범하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지금 바로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이 미사를 통해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이 일들이,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전해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기적들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이 다 기적이고 은총입니다. 매일 매일의 기적과 은총에 초대되신 여러분들, 늘 기쁘고 행복하시고, 웃고 사시기 바랍니다!